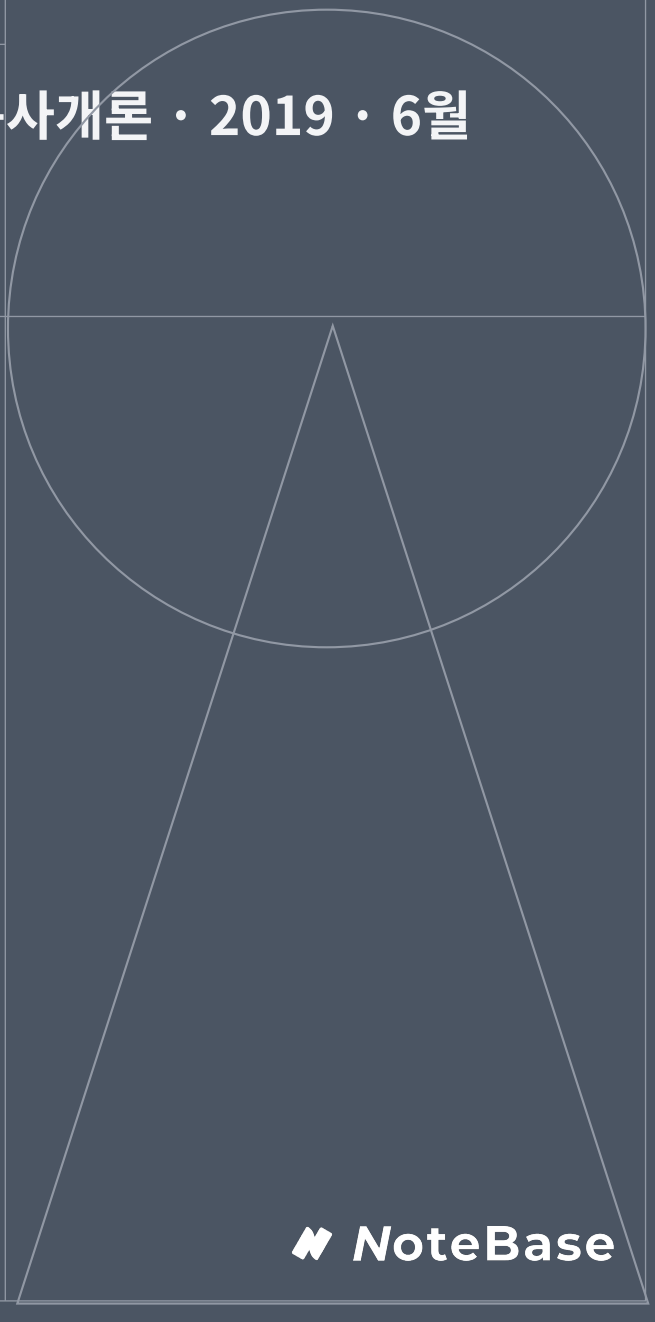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정보봉사개론 · 2019 · 6월

문 1. 참고정보서비스에서 행하는 간접서비스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비

② 서지정보의 확인

③ 참고집서의 평가

④ 자원파일의 구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서지정보의 확인은 이용자가 찾는 자료의 저자·서명·발행사항 등을 확인해 주는 **직접서비스**이다. 간접서비스는 이러한 응답을 뒷받침할 자료와 도구를 갖추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공통 해설

참고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직접서비스이고, 후자가 간접서비스이다. 구분 기준은 서지자료를 다루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직접 응답하는지 아니면 응답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관리하는지이다.

서지정보의 확인은 이용자가 찾는 문헌의 저자,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등을 조사하여 정확한 서지사항을 알려주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불완전한 인용정보를 제시했을 때 정확한 문헌을 확인해 주는 것은 그 이용자의 자료 탐색을 직접 돕는다. 따라서 서지정보의 확인은 간접서비스가 아니라 직접서비스에 해당한다.

반면 서지데이터베이스의 구비는 문헌을 찾는 검색 도구를 확보하는 일이고, 참고집서의 평가는 참고자료로 이루어진 장서가 서비스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일이다. 자원파일의 구축도 참고질문에 활용할 정보원을 모아 정리하는 일이다. 이들은 모두 개별 질문에 응답할 때 활용할 **자원을 준비·정비하는 활동**이므로 간접서비스에 속한다.

NoteBase

문 2. <보기 1>에 제시된 질문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법령을 찾습니까? 아니면 통계를 찾습니까?

<보기 2>
ㄱ. 참고면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의 유형이다.
ㄴ. 면담 초기에 정보요구 상황과 갭(gab), 질문 목적을 알아내려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ㄷ. 질문자가 제시한 것 외에 해답의 다른 선택이 없는 질문이다.
ㄹ. 특정한 주제나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법령'과 '통계' 중 하나를 고르도록 응답 범위를 제한하므로 **폐쇄형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이용자의 요구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기보다 특정 자료나 주제로 초점을 좁히는 데 쓰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보기 1>은 응답할 대안을 미리 제시하는 폐쇄형 질문이다. 참고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폐쇄형 질문으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ㄱ. X: 참고면담 초기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폐쇄형 질문으로 시작하면 사서가 제시한 선택지 밖의 정보요구를 놓칠 수 있다.

ㄴ. X: 정보가 필요해진 상황, 현재 이해에서 부족한 부분인 갭, 정보의 이용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중립형 질문**의 특징이다. 중립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의 한 유형으로, 이용자가 처한 상황과 필요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한다.

ㄷ. O: 폐쇄형 질문은 **질문자가 제시한 대안 안에서 응답하도록** 범위를 제한한다. <보기 1>은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설명하게 하지 않고 '법령' 또는 '통계' 중에서 고르도록 묻는다.

ㄹ. O: 폐쇄형 질문은 **특정 주제나 자료로 초점을 좁혀** 정보요구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된다. <보기 1>에서도 자료의 종류를 법령과 통계로 한정하여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형 질문의 특징에 해당하는 보기는 ㄷ, ㄹ이며, ③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브레이빅(Breivik)의 정보 리터러시 우산(Information Literacy Umbrella)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서관 리터러시(Library Literacy)

②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③ 네트워크 리터러시(Network Literacy)

④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데이터 리터러시는 브레이빅의 정보 리터러시 우산에서 **별도 구성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공통 해설

브레이빅은 정보 리터러시를 여러 정보 활용 능력을 아우르는 우산에 비유하였다. 이 모형에는 **도서관·컴퓨터·미디어·네트워크·시각 리터러시**가 제시되며, 이들을 아우르는 능력으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

도서관·컴퓨터·네트워크 리터러시는 모두 이 구성 목록에 들어간다. 반면 **데이터 리터러시는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브레이빅의 모형에 명시된 명칭에 따른 구별이며, 데이터 활용 능력이 정보 리터러시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4. 엘리스(Ellis)의 정보탐색 모형에서 정보행위가 일어나는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시작 - 브라우징 - 추출 - 검증 - 차별화 - 종결

② 시작 - 연결 - 차별화 - 추출 - 검증 - 종결

③ 시작 - 브라우징 - 차별화 - 검증 - 추출 - 종결

④ 시작 - 연결 - 추출 - 차별화 - 검증 - 종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찾아낸 정보원의 특성과 가치를 구별하는 **차별화**를 거친 뒤,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정보원을 가려내는 행위와 정보원에서 내용을 뽑아내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시작 → 연결 → 차별화 → 추출 → 검증 → 종결

이 배열은 엘리스의 정보행위를 윌슨이 과정으로 재구성한 흐름이다. 엘리스의 모형 자체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고정된 순서로만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탐색에서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브라우징·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작: 탐색의 출발점이 될 정보원이나 사람을 찾는다. 관련 문헌을 확인하거나 해당 분야를 아는 동료에게 문의하여 이후 탐색의 단서를 얻는다.

연결: 출발점이 된 문헌의 **참고문헌이나 인용 관계를 따라** 다른 자료를 찾는다. 알려진 문헌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원을 넓히는 행위이다.

차별화: 찾아낸 정보원들의 특성·질·관련성 차이를 이용하여 **활용할 정보원을 가려낸다**. 이 흐름에서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추출하기 전에 검토할 정보원의 범위를 좁힌다.

추출: 선택한 정보원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 뽑아낸다**. 차별화가 정보원을 가려내는 것이라면, 추출은 그 정보원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다.

검증: 추출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내용을 확보한 뒤 오류나 부정확한 부분을 점검하여 탐색을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종결: 마지막 탐색으로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탐색을 마무리한다. 단순히 탐색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마무리에 필요한 확인과 보완도 포함한다.

NoteBase

문 5. 협력형 디지털 참고 봉사 서비스의 모델인 'Question Poi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LC와 OCLC가 함께 개발한 글로벌 협력형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 최소의 비용으로 24시간,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 협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조직 및 기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④ 수서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자료구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QuestionPoint는 도서관들이 이용자의 질문에 함께 답하는 **협력형 디지털 참고서비스**이다. ④의 수서업무 개선과 자료구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협력수서의 효과**이며, QuestionPoint의 주된 기능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QuestionPoint는 **미국 의회도서관(LC)과 OCLC가 공동 개발**한 협력형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이다. 참여 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참고질문을 주고받고 사서의 전문지식과 질문·응답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이다.

② O: 참여 도서관이 **응답 인력과 서비스 시간을 분담**하면 각 도서관이 단독으로 상시 운영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하루 24시간·주 7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의 비용'은 이러한 공동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의미로 이해한다.

③ O: 국제적인 참고질문 응답망에 참여하면 자관의 서비스가 더 넓은 이용자층에 알려지고, 다른 도서관의 전문지식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범위와 전문성의 확대는 **기관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대내외적 위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④ X: 수서는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구입하는 업무이다. 수서 절차 개선과 자료구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협력수서·공동구매**와 관련된 효과이다. QuestionPoint의 협력 대상은 이용자의 참고질문에 대한 응답이므로, 그 효과는 질문의 배분과 전문지식 공유를 통한 참고봉사의 효율성 향상으로 설명해야 한다.

NoteBase

문 6.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주제 분야를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①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 법률 분야

② ABI/INFORM Complete – 경제·경영 분야

③ PAIS International – 화학 분야

④ WestLaw – 문학 분야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BI/INFORM Complete는 기업·산업 정보와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경제·경영 분야**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는 **문학·언어학 분야**의 연구 문헌을 찾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법률 분야가 아니라 문학·언어학 분야로 고쳐야 한다.

② O: ABI/INFORM Complete는 **경제·경영 분야**의 학술지 논문과 기업·산업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기업 활동, 경영 및 경제 동향에 관한 자료를 찾는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제시된 주제 분야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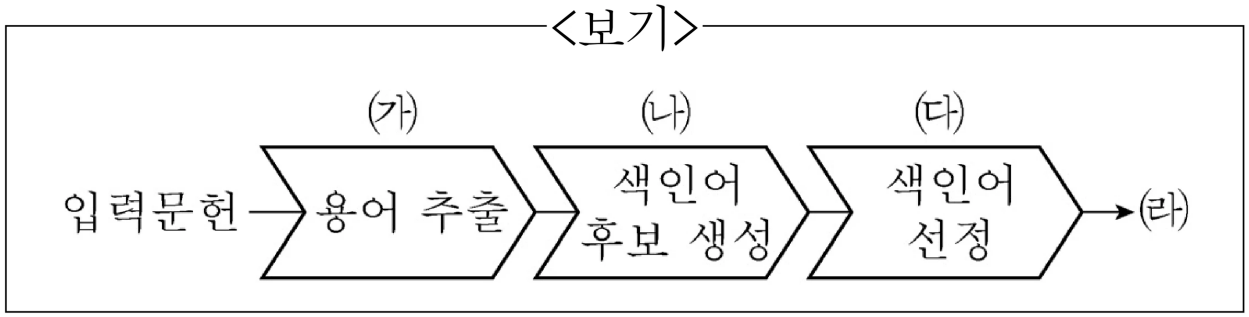
③ X: PAIS International은 공공문제와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정치·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의 문헌을 다룬다. 따라서 화학 분야가 아니라 **공공정책·정치·행정 분야**로 연결해야 한다.

④ X: WestLaw는 법령·판례 등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법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문학 분야가 아니라 법률 분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7. <보기>는 자동색인의 색인어 추출과 선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① (가): 문장 단위의 용어 추출 기법

② (나): 불용어 제거

③ (다): 통계적 기법과 비통계적 기법으로 선정

④ (라): 색인어 리스트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의 용어 추출은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어 단위의 용어를 분리·추출**하는 과정이다. 추출한 용어에서 불용어를 제거하여 후보를 만들고, 그중 문헌을 대표할 색인어를 선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입력문헌에서 **단어 단위의 용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어절 분리나 형태소 분석 등을 이용하여 문헌에 쓰인 단어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를 분석하여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문장 단위의 용어 추출 기법'은 '단어 단위의 용어 추출 기법'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나)는 추출한 용어를 정리하여 색인어 후보를 만드는 단계로, **불용어 제거**가 이루어진다. 불용어는 조사·접속사 등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거나 다른 문헌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적어 색인에서 제외하는 말이다. 이를 걸러 내면 색인어로 검토할 후보가 남는다.

③ O: (다)는 후보 중에서 문헌의 내용을 대표할 색인어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통계적 기법은 **용어의 출현빈도나 가중치** 등을 이용하여 중요도를 판단하고, 비통계적 기법은 문법·의미 등 언어학적 정보를 이용한다. 후보로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어가 최종 색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라)는 색인어 선정 단계가 끝난 뒤의 산출물이므로 **색인어 리스트**에 해당한다. 이 목록에는 앞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해당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색인어가 담긴다.

NoteBase

문 8. <보기>는 색인작업 시 미리 조합하여 만들어 놓은 색인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글이다. ㉠에 가장 알맞은 단어는?

<보기>
(㉠)은/는 문헌들의 주제를 그 기본적인 범주마다에 몇 개의 구성요소로 분석 후, 일정한 공식으로 범주를 합성하여 그 주제를 표현한 방법이다.

① 용어열 색인
② 유니텀 색인
③ 주제명 색인
④ 패싯분류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주제를 기본 범주별 구성요소로 **분석한 뒤 일정한 공식에 따라 합성**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패싯분류이다.

공통 해설

패싯분류는 문헌의 복합적인 주제를 여러 측면인 '패싯'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각 패싯에 해당하는 개념을 정해진 순서와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주제를 표현하는 분석·합성 방식이다. 여기서 **분석은 주제를 구성요소로 나누는 것**이고, **합성은 그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를 도서관이라는 대상과 한국이라는 장소의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한 뒤, 해당 분류체계의 규칙에 따라 결합할 수 있다.

보기에서 '기본적인 범주'는 패싯에, '구성요소로 분석 후 일정한 공식으로 범주를 합성'한다는 표현은 분석·합성 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는 패싯분류가 들어간다. 발문의 '미리 조합'한다는 조건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범주별 분석과 규칙에 따른 합성**이라는 주제 표현 방식이 결정적인 구별 기준이다.

NoteBase

문 9. 인용색인은 정보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인용된 자료와 인용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성한 색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용된 문헌과 인용한 문헌들은 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색인작성 과정에 색인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③ 해외의 대표적인 인용색인 서비스인 SCOPUS는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와 Science Citation Index를 제공한다.

④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Korea Citation Index 등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SSCI와 SCI 계열 색인은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한다. **Scopus는 Elsevier의 별도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두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저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이론·방법·결과 등을 제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다른 문헌을 인용한다. 따라서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 사이에는 **지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용이 반드시 해당 문헌에 대한 동의나 긍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② O: 인용색인은 저자가 참고문헌에 제시한 인용관계를 이용하므로, 색인자가 문헌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여 **주제어를 선정·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색인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주제색인 판단을 뜻하며, 서지정보를 정리하거나 인용 오류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 사회과학인용색인)와 Science Citation Index(SCI, 과학인용색인) 계열은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색인**이다. Scopus는 Elsevier가 제공하는 별도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이다. 두 서비스에 같은 학술지나 논문이 수록될 수 있지만, 그것이 Scopus가 SCI·SSCI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Korea Citation Index(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다. 국내 학술지와 논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 사이의 인용관계와 학술지 인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NoteBase

문 10. 정보검색 모형 중 질의와 문헌의 매칭 원리가 가장 다른 하나는?

① 불리언 모형

② 잠재의미색인 모형

③ 신경망 모형

④ 추론망 모형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불리언 모형은 AND·OR·NOT으로 표현한 **질의의 논리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문헌을 검색한다. 유사도나 관련성의 정도로 문헌을 평가하는 다른 세 모형과 달리, 기본 불리언 모형은 **검색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불리언 모형: 검색어의 존재 여부와 AND·OR·NOT 연산으로 질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완전일치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 AND 정보서비스'는 두 검색어가 모두 있는 문헌을, '도서관 OR 정보서비스'는 적어도 하나가 있는 문헌을 검색한다. 완전일치는 모든 검색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논리식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기본 모형 자체는 검색된 문헌 사이의 적합도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② 잠재의미색인 모형: 용어와 문헌의 출현 관계를 나타낸 행렬에 특이값 분해를 적용하여 차원을 줄이고, 잠재적인 의미 관계를 표현한다. 질의와 문헌을 같은 의미 공간에 나타낸 뒤 **벡터 간 유사도**로 매칭하므로, 검색어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관련 문헌을 찾을 수 있다.

③ 신경망 모형: 용어·질의·문헌 등의 관계를 연결된 처리 단위로 표현하고, 연결 가중치와 활성화 값 등을 통해 질의에 대한 문헌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단순히 논리식을 충족하는지만 검사하는 대신, 여러 검색 단서가 기여하는 **관련성의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어 문헌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추론망 모형: 문헌·검색어·질의 사이의 확률적 관계를 망으로 표현하고, 문헌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요구가 충족될 확률**을 추론한다. 이 확률 또는 믿음의 정도로 문헌을 평가하므로, 불리언 모형처럼 검색 여부만 두 값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②~④는 표현 방식과 계산 원리는 서로 다르지만, 질의와 문헌의 관련성을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논리 조건의 충족 여부로 매칭하는 ① 불리언 모형이 이 비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문 11. 학술지 『A』에는 2014년에 10편, 2015년에 10편, 2016년에 2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전 주제 분야에서 학술지 『A』의 2014년 발행된 논문을 30회, 2015년 발행된 논문을 30회, 2016년 발행된 논문을 40회 인용하였다. 학술지 『A』의 2016년 기준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① 1.5

② 2

③ 2.5

④ 3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영향력 지수는 기준연도에 받은 인용 중 **직전 2년간 발행된 논문에 대한 인용**을 해당 2년간의 논문 수로 나눈 값이다. 2014·2015년 논문 20편이 2016년에 60회 인용되었으므로 $\frac{60}{20} = 3$이다.

계산 과정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는 기준연도에 직전 2년간 발행 논문이 인용된 횟수를 그 2년간 발행된 논문 수로 나누어 구한다. 인용 횟수를 C, 논문 수를 N이라 하면 $IF = \frac{C}{N}$이다. 2016년 기준으로는 **2014년과 2015년에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 횟수 C: 2016년 한 해 동안 2014년 논문이 30회, 2015년 논문이 30회 인용되었으므로 C = 30 + 30 = 60회이다. 2016년 발행 논문이 인용된 40회는 **직전 2년간 발행 논문에 대한 인용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논문 수 N: 2014년 10편과 2015년 10편을 합하여 N = 10 + 10 = 20편이다. 분자와 발행연도 범위를 맞추므로 2016년 발행 논문 20편은 분모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IF = \frac{30+30}{10+10} = \frac{60}{20} = 3$이다. 이는 직전 2년간 발행된 논문 1편당 2016년에 평균 3회 인용되었다는 뜻이며, ④의 3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2. 정보자료는 가공 여부에 따라 1차자료와 2차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2차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학술잡지
ㄴ. 연감
ㄷ. 서지
ㄹ. 백과사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차자료는 기존 자료를 **정리·가공하여 정보를 찾거나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이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학술잡지는 대표적인 **1차자료**로 구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1차자료는 연구나 창작의 결과를 직접 담은 원자료이고, 2차자료는 기존 자료의 정보를 요약·재편성하거나 원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가공한 자료이다.

ㄱ. 학술잡지 — 1차자료: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논문으로 직접 발표하는 자료이다. 새로운 연구 성과를 담은 **원저작물**이라는 점에서 1차자료로 분류한다.

ㄴ. 연감 — 2차자료: 한 해의 주요 사건·활동·통계 등을 수집하여 **연도별로 정리·편집**한 자료이다. 기존 정보를 종합하여 필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하므로 2차자료에 해당한다.

ㄷ. 서지 — 2차자료: 문헌의 제목·저자·발행처 등 서지사항을 일정한 기준으로 배열한 자료이다. 문헌의 내용을 원문으로 제공하기보다 **어떤 문헌이 있는지 식별하고 찾도록 돕는** 도구이므로 2차자료이다.

ㄹ. 백과사전 — 2차자료: 여러 자료에 담긴 기존 지식을 주제별 항목으로 **요약·종합하여 설명**한 자료이다. 원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보기 쉽게 재구성하므로, 이 문항의 1차·2차 구분에서는 2차자료에 해당한다.

2차자료에 해당하는 보기는 ㄴ·ㄷ·ㄹ이며, 이는 ④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료유형의 영문 명칭은?

<보기>
· 학술잡지에 투고하기 위해 쓴 원고로 투고 전에 혹은 투고 후에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자료
· 다른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얻는 것과 선취권의 확보, 신속한 전달 등의 목적을 가짐

① Patent
② Preprint
③ White paper
④ Proceeding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학술지에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에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논문 원고를 **Preprint(프리프린트)**라고 한다. 피드백을 얻고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며 선취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공통 해설

Preprint(프리프린트)는 학술지 게재를 목적으로 작성한 논문을 **정식 출판 전에 공유하는 원고**이다.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배포할 수도 있고, 투고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기의 '투고 전에 혹은 투고 후에 비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는 프리프린트에 해당한다.

미리 공유하면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 논문을 보완하고, 학술지 출판을 기다리지 않고 연구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는 기록을 남겨 **선취권**, 즉 해당 성과를 먼저 제시했다는 우선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보기의 피드백·신속한 전달·선취권 확보는 모두 이러한 사전 공유의 목적이다.

NoteBase

문 14.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데이터요소가 더블린코어보다 풍부하다.

② 디지털자원의 여러 측면에 대한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다.

③ MARC21레코드를 MODS로 변환하고 이 데이터를 다시 MARC로 완벽하게 변환 가능하다.

④ 다양한 장르의 디지털자원에 대한 서지정보 기술이 가능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MARC 21을 MODS로 변환하면 일부 데이터나 세부 구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다시 MARC 21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MODS는 MARC 21의 일부 요소를 선택하고 간소화한 형식이다.

선지별 해설

MODS는 자원의 서지정보를 XML로 표현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MARC 21의 일부 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① O: MODS는 단순한 더블린코어보다 **풍부하고 세분화된 기술 요소**를 제공한다. 제목·저자·주제 등의 정보를 하위 요소와 속성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어 자원을 더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② O: MODS는 제목·저자·발행정보뿐 아니라 자원의 유형, 물리적 특성, 관련 자원, 접근 조건 등을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자원의 **여러 측면을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③ X: MODS는 MARC 21의 모든 필드와 세부 구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형식이 아니다. 여러 MARC 필드가 하나의 일반적인 MODS 요소로 통합되면 원래의 세부 구분이 사라질 수 있고, 대응하는 MODS 요소가 없으면 데이터 자체가 누락될 수도 있다. 따라서 MARC 21 → MODS → MARC 21의 변환은 가능하더라도 **원래 레코드의 완전한 복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④ O: MODS는 특정 장르에만 한정된 기술 형식이 아니다. 자원 유형과 장르를 나타내는 요소를 사용하여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자원**의 서지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NoteBase

문 15.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
· 사람의 이해와 활용을 전제한 문서 중심의 웹을 기계 또한 사람처럼 이해하고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웹으로 구축하는 것

① LOD
② MOOC
③ Open API
④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누구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면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LOD(Linked Open Data)**이다. 보기의 두 설명은 각각 데이터의 개방성과 데이터 중심 웹의 구축을 나타낸다.

공통 해설

LOD(Linked Open Data, 링크드 오픈 데이터)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연결**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의 대상과 관계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표현한다.

보기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는 Open Data의 개방성을 뜻한다. '문서 중심의 웹'을 '데이터 중심의 웹'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그 관계를 구조화하고 연결하여 기계의 자동 처리를 돕는 Linked Data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 두 특성을 함께 갖는 용어가 LOD이다.

예를 들어 책 데이터의 저자를 저자 데이터와 연결하면, 프로그램은 그 관계를 따라가 같은 저자의 다른 책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계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처럼 사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명시된 데이터 구조와 관계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6. 참고사서의 '학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을 재정의한 사람은?

① Jesse Shera

② William A. Katz

③ James I. Wyer

④ Armstrong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Jesse Shera는 참고사서의 전문성을 자료 검색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학자로서의 자질**에서 찾았다. 자료의 내용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그 지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공통 해설

Jesse Shera는 사서에게 자료를 다루는 기술뿐 아니라 **학문적 소양과 비판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학자로서의 자질'은 자료의 위치나 검색 방법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자료가 다루는 주제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고사서는 이용자에게 자료를 찾아 주는 일과 함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판단하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항의 '학자로서의 자질을 통한 전문성의 재정의'는 이와 같은 Shera의 사서관을 가리킨다.

NoteBase

문 17.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지수는?

<보기>
· Google에서 사용하는 PageRank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 동일한 1회의 인용이라 하더라도 학술지의 명성에 따라 영향력을 달리 계산한다.
·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 특히 국가별 자료를 제공한다.
· SCI에 등재되지 않은 Open Access 학술지의 평가에 유용하다.

① Impact Factor
② Journal Cited Half-Life
③ SJR Indicator
④ Article Influence Score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SJR은 **인용한 학술지의 명성에 따라 인용의 가중치를 달리**하며, 평가연도 직전 **3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측정한다. Scopus 자료를 활용하고 국가별 지표도 제공한다는 단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통 해설

SJR Indicator(SCImago Journal Rank)는 Scopus의 인용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PageRank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술지 사이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인용을 보내는 학술지의 명성**에 따라 인용의 가치를 다르게 반영한다. 같은 한 번의 인용이라도 영향력이 큰 학술지에서 받은 인용에 더 큰 비중을 두므로, 인용 횟수만 세는 것과 구별된다.

평가 대상은 평가연도 직전 3년간 해당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며, 이 논문들이 평가연도에 받은 가중 인용을 반영한다. SCImago Journal & Country Rank는 Scopus 자료에 기초한 학술지 지표와 국가별 지표를 제공한다. 따라서 SCI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Scopus에 수록된 오픈 액세스 학술지**라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학술지의 명성을 반영한 가중 인용·직전 3년간의 논문·Scopus 기반'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지수가 SJR이다. Article Influence Score도 인용 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반영하지만, Eigenfactor를 바탕으로 **5년간의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당 영향력**을 측정하므로 보기의 3년이라는 조건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8. 브라우징(Browsing) 검색의 특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예상치 못한 가치 있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기에 유리하다.
ㄴ. 이용자는 브라우징을 위해 특별한 검색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없다.
ㄷ. 정보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ㄹ. 정보검색 요구를 특정한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적합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브라우징은 검색어를 정교하게 구성하기보다 **제시된 정보를 훑어보며 탐색**하는 방식이다. 정보의 개요를 파악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데 유리하며, ㄹ처럼 요구를 특정 용어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검색어를 이용한 직접 검색**이 적합하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브라우징은 목록·분류 항목·관련 링크 등을 살펴보면서 관심 있는 정보로 이동하는 탐색 방식이다. 원하는 정보를 처음부터 정확한 검색어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눈앞에 제시된 정보를 단서로 탐색을 이어 갈 수 있다.

ㄱ. O: 목록이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찾으려 하지 않았던 유용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우연한 발견**은 브라우징의 장점이다.

ㄴ. O: 제시된 항목을 보고 선택하며 탐색하므로, 복잡한 검색식이나 연산자 같은 **특별한 검색 기법을 미리 익힐 필요가 없다**. 이는 시스템의 기본 조작까지 전혀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ㄷ. O: 정보의 목록과 분류 구조를 두루 살펴보면 어떤 주제와 자료가 제공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자료 하나를 찾는 것뿐 아니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ㄹ. X: 정보요구를 특정 용어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용어를 입력하여 자료를 찾는 **직접 검색**이 적합하다. 브라우징은 오히려 정보요구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거나 적절한 검색어를 떠올리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옳은 설명은 ㄱ·ㄴ·ㄷ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장서관리 방법은?

<보기>
장서에 포함되는 자원의 범위, 접근방식, 개발전략, 보존처리 등의 영역에 대해 수준별로 현재 장서의 현황을 기술하거나 장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① 컨스펙터스(Conspectus)
② 서지기술법(Bibliographic Description)
③ 판도라(PANDORA)
④ 디콜렉션(dCollection)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컨스펙터스는 장서의 범위와 깊이를 주제별로 나누어 **표준화된 수준으로 기술·평가**하는 방법이다. 보기의 '수준별로 현재 장서의 현황을 기술하거나 장서를 평가'한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컨스펙터스(Conspectus)는 도서관 장서를 주제나 분류체계에 따라 나누고, 각 영역의 장서 수준을 표준화된 지표로 나타내는 장서평가·관리 방법이다. **현재 장서 수준, 수집 강도, 도달하려는 장서 목표**를 구분하여 기록하므로, 어떤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보강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보기는 개별 자료의 정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의 범위·접근방식·개발전략·보존처리 등을 고려하여 장서 전체의 현황을 수준별로 기술·평가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처럼 **장서의 범위와 깊이를 수준으로 표현**한다는 점이 컨스펙터스를 식별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한 주제의 현재 장서가 학습지원 수준인데 목표가 연구 수준이라면, 두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장서 보강 방향을 정할 수 있다.

NoteBase

문 20. 대상 객체가 지니고 있는 여러 자질을 이용하여 유사성 등을 계산하고 유사성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그룹이 되는 군집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거리계수: 두 대상의 속성이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② 상관계수: 두 대상을 표현하는 분류자질들의 벡터 쌍에 대한 독립성을 측정하는 방법

③ 연관계수: 두 사건 확률변수 간의 의존적인 관계를 수량화하여 나타내는 방법

④ 확률적 유사계수: 벡터 공간상 대상 간의 상이성을 측정하는 방법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상관계수는 두 객체의 자질 벡터 사이에 나타나는 **선형적 관련성**을 수량화한다. 다만 ②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엄밀하지 않으며, **상관계수가 0이라고 통계적으로 독립인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거리계수는 객체를 벡터 공간의 점으로 보고 두 점 사이의 **상이성이나 거리**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거리가 작을수록 두 객체가 유사하다. '두 대상의 속성이 일치하는 정도'는 이 문항의 측정 도구 구분에서 연관계수에 해당한다.

② O: 상관계수는 두 객체를 나타내는 자질 벡터 사이의 관련 정도를 측정하므로, 벡터 쌍의 관계를 상관계수와 연결한 점이 적절하다. 대표적인 피어슨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다. 다만 선지의 '독립성'은 엄밀한 표현이 아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선형 관계가 없다는 뜻이며, 비선형 관계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상관과 통계적 독립을 동일시할 수 없다**.

③ X: 이 문항에서 연관계수는 두 객체가 공유하는 자질이나 **속성의 일치 정도**를 바탕으로 유사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예를 들어 자카드 계수는 두 객체의 자질을 합친 집합에서 공통 자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한다. 선지처럼 사건이나 확률변수의 의존 관계를 확률에 기초하여 수량화하는 설명은 확률적 유사계수 쪽에 해당한다.

④ X: 확률적 유사계수는 **확률 모형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두 대상의 자질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 등 확률적인 관계를 이용한다. '벡터 공간상 대상 간의 상이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거리계수이므로, 선지는 확률적 유사계수와 거리계수를 잘못 연결했다.

NoteBase